



반전 · 반자본주의 노동자 운동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이명박 OUT 특별 호외 9호

www.counterfire.or.kr

맞불

2008년 7월 5일 발행 /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atgmail@nate.com / 후원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 (백은진)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



촛불 항쟁은 지난 두 달 동안 한국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며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왔다.

미국에 간 이명박이 부시에게 광우병 위험 쓰레기 쇠고기들을 사겠다고 약속하고 온 것이 5월 2일부터 촛불에 불을 붙였다. 그것을 계기로 이명박 집권 두 달 동안 나타난 온갖 개악, 추문, 악행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청소년들이 시작한 촛불은 곧 대학생, 청년, 주부, 노동자 등으로 들불처럼 번져갔다. 청계광장에 머물던 촛불은 5월 24일부터 거리 행진에 나섰고 5월 31일에는 15만여 명이 청와대 텃밭까지 가서 '이명박 타도'를 외쳤다. 촛불집회와 거리 행진은 전국 곳곳과 주요 대도시로도 확산됐고 6월 10일 1백만 촛불 대행진은 첫번째 절정이었다.

촛불 항쟁은 취임 초반의 이명박을 정권 말기 같은 위기로 몰아넣었다. 박명림

교수가 말하듯 이명박은 이미 "정치·정책적 탄핵" 상태에 놓여" 있고 이명박의 "대선 핵심공약은 '모두' 철회·중단·악화·역전되었다."

〈조선일보〉도 촛불 항쟁이 "국가 간 공식 협정을 사후에 바꾸도록 했[고] ... 대통령이 두 번이나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 사과하게 만들었고 ... 대통령은 대운하를 포기했고, '수도·가스·전기·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썼다.

그러나 촛불에 밀려 두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빠져린 반성"을 말하던 이명박은 지금 폭력적 반격에 나서고 있다. 재벌과 강부자들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촛불 항쟁에 대해 재벌과 강부자·조중동 등 기득권 세력이 느끼는 두려움은 매우 크다. 이들은 이명박이 여기서 더 밀리면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대운하,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 교육 시장화 등을 추진하지 못할 거라고 본다. 나아가 피억압 민중의 사기가 올라가 자신들의 재산과 기득권이 위협받는 어떤 격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판돈

그래서 경총 회장 이수영은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쏟아냈고, 〈조선일보〉는 "경제계에서 들끓는 분노의 수위가 이만저만한 수준이 아니[며] ... 청와대와 집권당이 성토 대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6월 30일에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도 "또다시 유화책으로 돌아설 경우 상황은 견잡을 수 없이 돌아간다"며 "이쪽(정권)이나 저쪽(시위대) 중 하나는 끝장을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촛불 항쟁의 성패에 걸린 이런 어마

어마한 판돈 때문에 지금 이명박은 미친 듯이 잔인한 폭력에 매달리고 있다.

7월 5일 이후에도 이명박은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 할 것이다. 물론 폭력 탄압 일변도로 돌아섰어도 촛불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보수 세력은 7월 5일 이후 훨씬 더 야만적으로 촛불 끄기 공세에 나설 수 있다.

이때, '제도권 내에서 해결돼야 하고 헌정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며 주춤거리다가 이명박에게 반격의 기회를 줬던 6월 10일 이후의 오류가 반복돼선 안 된다.

그 점에서 7월 5일 이후 '촛불의 승리를 선언하고 불매 운동, 재협상 국민투표 등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이런 주장은 곧 '국회 등원할 민주당을 통한 제도적 해결에 기대해 보자'는 주장과도 연결돼 있는 듯하다.

» 3면으로 이어짐

촛불은 변질됐는가

조중동과 청와대, 한나라당, 김·경찰은 미국산 쇠고기에만 반대하던 “순수한” 촛불시위가 “전문 시위꾼들” 때문에 온갖 쟁점에 반대하고 정부 퇴진을 외치는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위선적이게도 사제단의 비폭력 침묵 행진과 이전의 촛불시위를 대조하며 촛불이 폭력적이었던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5월 초 ‘촛불 소녀’들이 맨 처음 촛불을 들었을 때부터 가장 인기 있는 구호는 “광우병 걸려 의료보험 민영화로 돈 없어 죽거든 대운하에 뿌려주요”, “이명박은 물러나라”였다. 다음 아고라의 ‘이명박 탄핵 서명’도 5월에 이미 1백만 명을 넘어섰다.

촛불 소녀

무엇보다 맨몸으로 행진하는 시위대에 게 물대포를 쏘고, 소화기·썰도를 던지고, 방패로 쪼으며 1천여 명을 연행한 건



지난 5월 3일 청계광장에 모인 청소년들 - 촛불 행진은 처음부터 이명박의 모든 것을 반대했다

이명박 정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심지어 손가락이 잘리고 두개골이 골절된 사람도 있었다. 저들은 일부 시위대의 ‘폭력’을 부각했지만 그조차 이명박의 ‘소통 없는 일방통행’과

폭력 진압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

2005년 사학법 개정 반대 시위 때 촛불을 들고 “정권 퇴진”을 외쳤던 자들이 이제 와서 야간 집회와 정권 퇴진 요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위선일 뿐이다.

“국민을 섬기겠다”더니 국민을 군함발로 짓밟고,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서민 경제를 파탄낸 이명박 정부의 미친 정책들에 반대하며 그 지도자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가축법 개정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촛불 눈치보기와 국회의원까지 두들겨 패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늦춰져 왔지만, 민주당은 줄곧 등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야당이 국회로 등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한나라당에 애원했다.

추가협상 직후부터 민주당은 재협상 요구를 슬며시 접고 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이 재협상의 대안인 것처럼 치장했다. 그러나 가축법 개정안은 대안이 아니다.

* 월령 제한: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으로 돼 있다. 그러나 20~30개월령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다.

* 특정위험물질(SRM): 내장 전체가 아니라 화장원위부만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 곱창에 대한 국민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 또, 변형 프리온이 다량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진 장간막·삼차신경절·등배신경절을 SRM에서 제외했다.

* 수입 검역 중 SRM이 발견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검역 중단이 아니라)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 금지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해 놓았다.

* 도축장 승인권·취소권: 규정이 아예 없다.

* 쇠고기 제품 월령 표시: 별도 규정이 없다.

민주당의 가축법은, 그 당 자체와 꼭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내용에 표지만 요란하게 꾸며 놓았을 뿐이다.

조중동과 정부 또 ‘괴담’ 타령

〈조선일보〉는 “1997년 이후에 미국 소 중에 광우병 확인 사례는 없고 … 3억 명의 미국인들 중 지금까지 미국 쇠고기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또 ‘괴담’ 취급했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미국산 쇠고기를 가족과 함께 먹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전체 1억 마리의 소 중에 겨우 0.1퍼센트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할 뿐이다. 그리고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도 없는 미국 보건 당국이 발표하는 치매나 광우병 통계는 신뢰하기 어렵다. 마치 10년 동안 건강검진 한 번 안 받은 사람에게 ‘당신은 병이 발견된 적이 없으니 건강하다’고 단정 짓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게다가 추가협상으로 도입한 QSA는 미국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져 광우병 위험을 없애지 못한다. 광우병특정위험물

질(SRM)도 대부분 수입돼, 식탁 위에 올라가게 됐다.

그리고 미국의 검역 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26일에는 SRM이 포함된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돼 미 검역당국이 전량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 결과로 한국은 광우병은커녕 대장균에 감염된 쇠고기의 반입조차 근본적으로 막지 못할 처지다.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이야말로 미국을 믿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라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흑세무민의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이중잣대 정교분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의 시국미사는 정부의 폭력적 탄압에 지쳐 있던 촛불에 새롭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개신교 목회자들의 시국 기도회와 승려들의 시국 법회도 뒤따랐다.

그래서 우파들은 “[사제단이] 꺼져가는 촛불에 기름 부으며 다시 살리고 있다”(보수단체 기자회견)며 발을 굴렀다. 조중동도 “폭력성을 드러낸 촛불시위를 비호하는 것[은] …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사제단을 비난했다. 그러나 폭력성을 드러낸 것은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다.

보수 언론의 “정교분리” 요구는 위선이

다. 김진홍, 서경석 등 보수 개신교 목사들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거나 대운하 찬성 단체를 만드는 ‘정치적’ 활동을 해 왔다. 조중동은 노무현 정부 때 사학법 개정 반대 성직자들을 편들며 “종교계 반발 경청[하라]”고 핏대를 세운 바 있다.

본분

거리로 나선 성직자들은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 편에 섰던 예수와 붓다의 가르침대로, 이명박 정부에 유린당하는 서민들의 편에 서서 ‘본분’을 다한 것이다.

조지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라

최악의 테러리스트로 공공의 적 1호인 조지 부시가 8월 초 방한한다. 부시의 악행은 다음과 같다.

● 그의 침략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이

스라엘을 사주해 레바논을 침공했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다. 최근에는 이란으로 전쟁을 확대하려 한다.

● 부시의 돈줄이자 전쟁 폭리 기업 백텔은 저개발국가의 수도 민영화를 주도해 요금을 수백 퍼센트씩 올리기도 했다. 카길 같은 거대 곡물

기업은 투기 등으로 식량 가격을 폭등시켰다.

● 부시는 미친 소 수입 사태를 부른 한미FTA를 강행하자고 이명박과 결의를 다질 것이다. 한미FTA는 의료·교육·전기·물·가스 등의 시장화를 부를 것이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 부시와 이명박이 추진할 한미전략동맹은 한국인들을 전쟁의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명박이 참가를 준비중인 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는 중국과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다. PS(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규상) 참가는 북한과 군사적 갈등을 빚을 뿐더러, 미국의 이란 압박에도 동원될 수 있다.

부시 방한에 반대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행동할 예정이다. 이에 적극 참가하자.

진정한 힘은 촛불에 있다

》1면에서 이어짐

그러나 이명박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촛불이 꺼질 때까지’만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대운하와 물·전기·가스·의료 민영화도 ‘촛불이 꺼질 때까지’ 유보된 것일 뿐이다.

서민경제 말살을 추진해 온 강만수, 국민을 군홧발로 짓밟은 어청수, 언론 재갈 물리기를 주도해 온 이동관 등은 그대로 자리에 있고, 모든 미친 정책의 배후인 이명박도 그대로 있다.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 의원 김성조가 “국민을 머슴처럼 … 주, 주인처럼 섬기겠다”고 한 것도 단지 말실수는 아닐 것이다.

불매 운동도 효과적 대안은 아니다. 이명박도 “싫으면 안 사먹으면 그만”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국민투표도 설사 만에 하나 이명박이 그것을 받아들인 다손 치더라도 촛불을 내리고 이명박에게 시간만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지난 5년간 신자유주의 개악들을 주도한 당사자인 민주당이 국회로 들어가 우리의 목소리와 요구를 대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헛되다.

아래로부터

따라서 지금은 선불리 승리를 선언하고 촛불을 끌 때가 아니다. 한홍구 교수도 역사를 돌아보며 “촛불을 빨리 끄면 기회를 또 놓치고 만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 우리는 이명박의 미친 정책들을 일시 중단시킨 진정한 힘인 아래로부터 투쟁을 계속 중심에 뒀야 한다. 또한, 단지 쇠고기 문제만이 아니라 온갖 미친 정책들의 인격적 화신인 이명박 자신을 반대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조직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이명박 정부의 사회적 기반인 재벌들

촛불은 이명박이 고개 숙이게 했다. 완전히 주저 앉힐 힘도 촛불에 있다

의 이윤에 타격을 준다면 촛불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 노조 지도자들의 소심함과, 정치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노동조합 운

동 자체의 약점 때문에 이런 기대는 잘 채워지지 않고 있다. 산업현장 활동가들은 촛불의 역동성을 현장 노동자들 속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출된 정권을 그만두라는 것은 심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도 아니고 불과 6개월 전에 정상적인 선거로 선택한 정권”인데 “청와대로 가자” 이런 것은 심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6개월 전에 BBK 사기극을 ‘떡값 검찰’이 덮어 주면서 총 유권자 중 고작 30퍼센트의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됐다. 더구나 당시는 노무현 5년 배신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하도 커서 ‘한나라당에서 개를 내보내도 당선할 것’ 같았던 분위기였다.

당시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들은 온갖 부패와 추문에도 불구하고 ‘747과 경제 살리기’ 공약을 보고 찍어 준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명박의 ‘747’은 사기극으로 드러났고 이명박은 놀라운 속도로 서

민 경제 말살과 민주주의 파괴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은 지금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이나 쓸 법한 … 낡은 방법을 구사”(청와대사의 시국법어 중)하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물가 폭등을 부채질하며 “버스 기본 요금이 70원인가?”(한나라당 정몽준) 하는 재벌 정권에게 서민들이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정부는 재벌 감세, 부동산 투기 조장책을 ‘민생 정책’이라고 할 만큼 뻔뻔스럽다.

따라서 불과 4개월 만에 자신을 뽑아 준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치고, 군홧발로 짓밟으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부에게 ‘그만두라’고 요구하며 행진하는 것은 정당하다.



여론 왜곡은 <PD수첩>이 아니라 조중동이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PD수첩>과 인터넷 매체를 검열·통제하고 있다. 검찰은 <PD수첩>에 방송 자료를 몽땅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신들이 의뢰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에 위법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실 왜곡[으로] 엄청난 국가불이익을 가져 온”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다. 두 달째 거리에서 항의하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을 휘두른 이명박 정부가 위법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한편 조중동은 자신들의 목을 죄던 조중동 광고 반대 운동을 공격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세무조사만 해도 ‘언론 탄압’이라며 길길이 날뛰던 조중동은 KBS, MBC, <한겨레>, <경향신문>과 인터넷 포털 등 자신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을 비난하며 ‘형님뉴스’의 진면목을 보여 줬다.

그러나 “소수의 네티즌이 인터넷 여론을 좌지우지”한다며 비난하는 조중동이야말로 광우병 쇠고기를 안전하다고 우기고, 경찰 폭력을 촛불시위대 폭력으로 둔갑시키고, 현대차 파업 찬반투표 가결을 부결로 보도하며 왜곡의 진면목을 보여 줬다.

사실, 일제 시대부터 극소수 조중동 편집자들이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위해 여론 왜곡을 일삼아 왔다.

미국 국내에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촛불

수년간 부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매개로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른 나라에 강요해 왔고, 한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로 대만이나 일본 등을 압박할 예정이었다. 우리 투쟁이 승리하면 부시 정부가 그런 몰상식한 짓을 강요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다.

촛불은 미국에서 광우병 문제를 다시 한번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데도 일조했다. 예컨대, 촛불시위에 1백만 명이 참가하자 <USA투데이>, <워싱턴포

스트>,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대표적 일간지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또, 미국의 대표적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 연맹’의 마이클 한센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글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다.

우리의 촛불시위는 불량 식품 때문에 매년 30만 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 중 5천 명이 죽는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 데 힘을 보탰다.

전 세계적 저항운동의 일부인 촛불

촛불 시위가 1백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햇불’이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이명박의 각종 ‘비즈니스 프렌들리’ 반(反)서민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그런 점에서 촛불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투쟁의 일부다.

최근 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폴란드·프랑스·영국·이탈리아·헝가리 등 유럽 국가와 말레이시아·인도·파키스탄·홍콩·네팔·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 그리고 이집트, 레바논 등 중동 국가에

서 물가 폭등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상품 가격을 마구 올리는 기업들에 항의하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인도에서는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파업이, 말레이시아에서는 ‘1백만 대행진’이 예정돼 있다. 필리핀에서는 일찌감치 정권 퇴진 구호가 나왔다.

이명박은 우리를 경제 불황 때 엉뚱한 일에 자원을 낭비하게 만드는 철부지들로 몰아가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시장경제 만능주의에 저항하는 전 세계적 투쟁의 일부다.

주간 <맛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reader@counterfire.or.kr / 02-2271-2395

계좌 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 ☐ 기업의 이윤을 위한 민영화에 반대하십니까?
- ☐ 비정규직화에 반대하십니까?
- ☐ 부시의 침략 전쟁에 반대하십니까?
- ☐ 임시지옥과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십니까?
- ☐ 토론하고 논쟁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사람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이명박의 시장 만능주의와 미국 부시 정부의 침략 전쟁에 반대합니다. 성, 성 지향, 인종 등에 따른 차별에 반대합니다. 다함께는 다른 세계를 만들기 위해,

- 사회 문제와 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하는 열린 광장 ‘대학 앞소리의 포럼’, ‘지역 사회포럼’을 개최합니다.
- 세계와 한국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진보적 시각으로 다루는 주간 신문 <맛불>을 발행합니다.
- 한미FTA 반대, 파병 반대, 비정규직 차별 반대 등 정부와 기업들이 세계를 망치는 일을 막기 위한 활동에 적극 참가합니다.

<맛불>과 다함께를
후원해
주십시오

대량으로 나눠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진실과 저항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도록 정성을 모아 주십시오.

후원계좌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694701-01-227958 / 하나은행 197-910005-87207 / 우리은행 1002-130-543338 / 신한은행 308-12-498840 * 웹사이트(www.alltogether.or.kr)에서 핸드폰결제 · CMS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함께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일절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지지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다함께는 이명박 반대 시위에서 호외, 손팻말과 스티커를

촛불 탄압 중단하라

촛불의 구심이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과 주요 활동가 체포영장 발부, 진보연대와 '2MB탄핵투쟁연대'(안티 이명박 카페) 사무실 압수수색, 촛불시위 원천 봉쇄 방침,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 등 촛불 짓밟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대책회의와 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불법"의 증거랍시고 내놓은 것들은 어처구니가 없다. 게다가 이미 인터넷에 다 공개된 내용들이다.

촛불집회 시간·장소 공지, 고시 강행시 즉각적인 규탄을 하자는 호소, 경찰 폭력에 항의해 달라는 호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 전화 하자는 제안 등이 모두 '불법' 행위고, 이것을 계획하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두 단체는 '불법' 행위의 배후라는 것이다.

정부와 조중동에게는 이명박의 친재벌·반서민 정책에 반대하는 행동을 모으는 것은 그 무엇이든 '불법'인 것이다. 그러나 지지를 7퍼센트 짜리 정부가 국민 80퍼센트의 요구를 대변하는 활동을 한 단체에게 '불법' 딱지를 붙일 자격이 없다.



촛불시위 참가를 호소하는 대책회의(좌), 가스통 폭파 협박을 하는 고엽제전우회(우) - 누가 '불법 폭력'인가?



진보연대 탄압 중단하라

정부와 조중동은 진보연대 등 대책회의에 적극 참가해 온 단체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마녀사냥하고 촛불시위 참가자들과 단체들을 이간시키려 한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실체는 골수 반미단체이며 거리 시위는 과거 반미 시위를 이끈 '전문 시위꾼'들이 주도하고 있다", "진보연대는 골수 반미단체"라며 해묵은 색깔 공세를 펼쳤다. 며칠 후 진보연대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다.

진보연대 성명서가 밝혔듯이 "촛불을 끄려면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진보연대에 색깔을 입히고 진보연대를 배후로 조작하는 것"이다.

촛불 운동 전체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색깔론에 맞서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는 단체들을 방어해야 한다.

촛불 지킴이들을 석방하고, 체포영장 철회하라

경찰은 대책회의 실무자로 활동했던 안진걸, 윤희숙, 황순원 씨를 구속했다.

박원석·한용진 대책회의 상황실장, 김광일 행진팀장, '안티 이명박 카페' 백은종 씨, '미친소닷넷' 백성균 씨 등 8명에게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배 생활의 어려움이 크지만

이들은 자진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촛불의 입이자 손발이었다. 국민 압도 다수의 염원을 대변하기 위해 밤낮 없이 온갖 실무를 도맡아 헌신해 온 이들은 죄가 없다. 구속된 3인을 석방하고 수배 상태에 있는 8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당장 철회하라.

경제 파탄을 촛불 타트로 떠넘기는 747사기꾼

이명박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촛불시위에 떠넘기고 노골적으로 촛불을 끄라고 요구한다. "촛불시위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5월에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월대비 8.4퍼센트 늘었고,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도 전년 동기대비 3.5퍼센트 상승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 목표를 4.7퍼센트로 낮추면서 세계경제 악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그러나 지난해에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가 폭발하면서 이미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시작됐고, 유가 상승도 예상된 일이었다. 당시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는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다.

책임회피

이명박 정부는 "근로자는 임금 동결을, 기업은 자발적으로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청와대 경제수석 박명원)며 다시 '고통분담론'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5퍼센트로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노동

자·서민이 고통을 겪는 동안, 3대 백화점 명품관 매출은 5월에 39.1퍼센트나 증가해 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IMF 때와 마찬가지로, 부유층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경제 위기의 부담은 노동자·서민에게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생대책'이라고 내놓는

한미FTA 비준,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와 법인세 감면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도 재벌·부유층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다.

촛불을 더 높이 치켜들고 임금 상승과 복지 확대를 위해 투쟁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서민 경제'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명박이 물가 폭등을 부채질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52개 품목의 이른바 'MB물가'는 전·월세를 제외하면 9퍼센트나 폭등하는 등 오히려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수출 대기업을 위해 원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저평가해서 석유와 각종 원자재 수입 가격이 폭등했고 물가가 더 올랐다.

이명박의 각종 '개혁' 정책도 물가 인상을 부추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비 폭등이다. 올해 1분기 도시근로자의 사교육비 지출은 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 이명박은 기업들이 가격을 마구 올리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특히 석유, 밀가루, 설탕 등 몇몇 민간 업

체가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에 더 심하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지식경제부 장관 이윤호는 "전기와 가스공급 요금을 이제 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공공요금도 곧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기업을 재벌에 내맡기는 '선진화'가 아니라 정유사·통신회사 등 이미 민영화한 기업들까지 재국유화해 국가가 저렴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통분담'이 아니라 물가 인상을 넘을 만큼 임금을 올려야 하고, 감세가 아니라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서민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려면 거대한 대중 투쟁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2008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생필품 가격 인상률